

한라포커스 제주 '코로나19' 확산 실태와 전망

2명 확진·77명 검사중·324명 자가격리

확진자 다녀간 곳 폐쇄조치... 각종행사 연기·중단
 이스라엘 성지순례 도민 37명 현재 자가격리 상태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 추가감염 변수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제주에도 비상이 걸렸다.
 도민들은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다녀간 곳들은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문을 닫았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02명(사망 5명)으로 전날 204명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2명이며 현재 77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제주국제공항 내 해군부대에 근무하는 A상병(22)과 서귀포시 회수동 WE호텔에 근무하고 있는 B(22·여)씨다.

A씨는 지난 18일 휴가를 받고 고향인 대구를 방문해 돌아온후 21일 새벽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 13일 대구를 방문한 뒤 16일 오전 11시30분 제주로 돌아왔으며, 22일 오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또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제주도민 37명중 1명이 기침증상을 보여 22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으나 23일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상당 추의 권고에 따라 자택에서 자가격리중이다. 21일 기준 제주지역 자가격리자는 총 324명이며, 격리 해제자는 245명이다.

제주도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을 다녀온 경북 북부 성지순례단 39명 가운데 9명이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만

일의 상황에 대비해 도민 순례단에 대한 감염 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
 지난 17-22일 5일간 대구서 총 1만2000여명 입도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의한 전파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대책= 제주도는 추가 예방조치를 위해 도내 신천지교회측에 '폐쇄 및 집회 금지'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에 신천지교회측은 관련 시설을 모두 자진 폐쇄했다. 도는 신천지 교인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명단을 받는 즉시 전수조사 및 자가 격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제주지역 종교시설 788개소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원희룡 도지사가 23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A상병 근무 부대원들을 서귀포 소재 군 시설로 이동시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고 B씨가 근무하고 있는 WE호텔을 비롯한 서귀포시 9개소는 방역소독 실시와 함께 일시적 폐쇄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마을행사를 포함해 행정·민간단체의 모든 행사

를 연기하거나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정부에 역학조사관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도 청사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청사 방호 대책을 수립했으며 대구·경북 방문 공직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망=제주지역 확진자 2명과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도내 교인들에 의한 추가 감염여부가 제주지역 확산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번째 확진자(B씨)에 대한 제주지역 총 접촉자는 124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도내 교인들에 대한 실태는 현재 파악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심 증세가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나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22일 제주 지역 두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귀포시 위(WE)호텔에서 방역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상국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 문 대통령 어제 대책회의 "향후 며칠이 고비"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이에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심각' 단계 부터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고, 행안부가 필요인력과 시설 지원, 재난 관리기금과 특별교부세 지원 등에 대한 상황을 컨트롤 하겠다. 또한 휴교, 대중교통 운행 제한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수분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로 격상에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 규정에 없애지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롭게 확진되는 환자 대부분이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의 방역 체계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면 외부로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 확진 환자들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전수조사와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는 다른 종교와 일반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번에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가운데 이뤄지는 행사가 감염병 확산에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타인에게, 그리고 국민 일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 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주시길"을 당부했다.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코로나19' 제주 비상... 관련기사 2, 4, 5, 6, 7면

www.bonbonauto.co.kr

새봄, 프랑스 감성이 깃든
고품격 푸조/시트로엥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PEUGEOT CITROËN

푸조 공식딜러
(주)봉봉오토모빌

- 중문전시장 739-0533(서귀포시 일주서로 532)
- 제주전시장 743-5001(제주시 오일장중길 100)
- 서비스센터 743-5002

푸조/시트로엥 서귀포 중문 전시장
 영업딜러 모집(2명)

- 근무지: 푸조/시트로엥 서귀포 중문전시장
- 서귀포 중문 거주자 환영
- 접수 및 채용안내: jhd21@naver.com
 010-9379-7701